

광주 대형공사 부실 설계·시공 '수두룩'

올해 준공 20억원 이상 12건 적발 시정·주의 조치 시공사 6곳 벌점·과다지급 공사비 1억5천만원 회수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올해 준공한 대형 공사현장이 부실설계와 시공 등으로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0일 "대형공사 현장(공사비 20억원 이상)에 컨설팅(특정) 감사 결과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 소홀 등 모두 12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 13명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

10명은 징계 요구를 받았다.

시공사 6곳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르는 벌점이 부과됐으며, 과다지급한 공사비 1억5000여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를 진행한 현장 10곳 중 광산 선운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립공사와 전기 등에서 각각 지적 사항이 나와 건수가 모두 12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장등천 개수 공사는 옹벽 블록과 배수통관 등이 설계

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가 발생, 보완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구 충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설계에도 없는 원형 거푸집이 내역서에 포함되고 조경수 70여 그루는 심지도 않는 등 엉터리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비 44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서구는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면서 기초파일 깊이를 6m로 엉터리 설계했다가 정작 시공 과정에서 11.5m로 확인돼 관련 건축사가 징계 요구됐다.

남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작성부실, 펜스설치 공사

부당시공, 감리업무 소홀 등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준공 2개월 만에 자연석형 잔디 블록을 철거하고 점토 블록으로 재시공하는 등 1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광산구 원입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철근 가공 방법과 수량 등이 부적정하거나 과다하게 반영돼 공사비 2280여만 원을 회수 조치당했다.

이밖에 선운도서관 건립사업은 설계도서 작성소홀, 전기 수배전반 공사 과다산출 등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는 잔디 식재량 과다설계, 시공과 감리 부적정, 전기 공사비 과다, 엉터리 수목 하자 보수 등이 적발됐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대, 美 불룸필드대학에 국립대 첫 해외학사 개소

"해외 연수·취업 확대 기대"

전남대학교가 미국 뉴저지주 불룸필드대학에 '전남대 미주학사(Chonnam National University U.S. Satellite Office)'를 개소했다.

전남대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뉴저지주 불룸필드대학에 해외학사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대는 미주학사를 '글로벌 CNU' 구축을 위한 해외캠퍼스(분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남대는 뉴욕시립대학 버록 컬리지, 캘리포니아주립대 LA 캠퍼스와 각각 MOU를 체결해 학생 및 교원 교류를 하기로 했다.

정병석 총장은 "해외 연수, 취업기회 확대 등 다양한 결실을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미주학사 개소를 계기로 '글로벌 CNU' 브랜드화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전남대학교가 최근 미국 뉴저지주 불룸필드대학에서 '전남대 미주학사' 개소식을 했다. <전남대학교 제공>

영암출신 민갑룡 경찰청 차장 승진

경찰 고위직 인사

정부는 "지난 8일자로 영암출신 민갑룡(52·사진) 경찰청 기획조정관(차안감)을 경찰청 차장(차안감)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차안감·차안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고, 박은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유임됐다.

민 신임 경찰청 차장은 영암출신으로 영암 신북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경찰내부의 대표적인 기획·전략으로 꼽힌다.

차안감은 차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자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된다. 경



(경찰청 차장·경기남부경찰청장), 영남 2명(인천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 제주 1명(경찰대학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규현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 경무관 4명의 차안감 승진 내정·전보 인사도 이뤄졌으며, 전북 출신의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전북경찰청장으로 옮기는 등 차안감 17명의 전보인사도 단행됐다. /박진표기자 lucky@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간부 중징계 요구

민서 '늑장 보고'에 약의는 없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9월 장례를 치른 단원과 조은화·허다운 양의 가족은 이날 초 유골 발견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부장과 이철조 본부장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구명 움직임에도 해수부 감사관실은 두 사람에게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두 사람의 행위에 약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해수부 위계에 따르지 않고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조지의 기강을 해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해수부는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해수부는 지난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인사 처분 방침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달인 23일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다.

감사 초반에는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지만,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빠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0, 해질 17:21, 달출몰 00:37, 달몰림 13:25

최근길 함박눈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세요

◇지역별 날씨(℃)

광주	주 차차하러저는 -2/2	보성	구름맑음 -4/3
목포	포 차차하러저는 1/2	순천	구름맑음 -3/3
여수	구름맑음 -1/4	영광	차차하러저는 -2/1
나주	차차하러저는 -3/3	진도	차차하러저는 -1/4
완도	구름맑음 2/4	전주	차차하러저는 -3/0
구례	차차하러저는 -5/1	군산	차차하러저는 -3/0
강진	구름맑음 -1/4	남원	차차하러저는 -4/1
해남	차차하러저는 -2/4	속산도	차차하러저는 2/4
장성	차차하러저는 -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5~3.0	북서~북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06	08:13
	13:20	20:49
여수	간조	만조
	09:14	03:26
	22:19	15:45

◇주간 날씨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	☁	☁	☁	☁	☁	☁
-4/1	-4/3	-4/5	-2/7	-2/6	-1/4	-1/6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큰 눈 예보...제설대책 '만전'

광주시 "1000여명 투입"...전남도 "비상동원 체계"

광주시와 전남도가 11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에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제설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광주시는 10일 "눈이 많이 내릴 경우 제2순환도로와 빙고골로 및 5대 관문도로 등 총 439개 노선 608km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 등 1058명이 참여하는 7개 반의 제설팀을 꾸려 제설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강설예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 적설량에 따라 대책을 구분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역시 최근 지방도 734호선 장성 삼계면 갖재 부근에서 교통소통 기관 합동훈련을 하는 등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과 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대비를 갖는다.

도는 제설인력의 비상 동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제설차량과 덤프 243대, 살포기 264대 등 제설장비 1319대와 염화칼슘 2245t 등 제설자재를 비축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 교통 불편과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등 191개소 418.3km에 취약 구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한편 경계지역 사각지대의 제설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5·18 왜곡' 지만원 명예훼손 기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75)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지난 6월26일 5·18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왜곡·편향해 온 지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지씨를 조사했다.

지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회원들은 지난 6월2일부터 서울역 앞 집회에서 '5·18 당시 광주 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광주 시장의 증언)'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했고,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사실을 게시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기대 기쁨!!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부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리전 및 예적금발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MG 금남새마을금고